

[사설]

임상미생물학회지 학진등재에 부쳐

편집이사
김선주

임상미생물학회지는 임상미생물학회 활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며 상징이다. 좀 더 알차고 내실있는 학회지 발행을 위해, 지난 12년여를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태동 단계(1998~2004년.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 이전)

임상미생물학회가 창립되었고, 1998년 10월 학회지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이후 매년 2회씩 발행되었고, 편집위원장은 강정욱, 어영, 조지현, 이미애 교수가 1~2년씩 맡아서 학회지 발행을 맡아 주었다. 이때까지는 접수 원고의 수가 부족하고, 심사도 모두 우편으로 하여서 느리고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때는 학회지의 태동기 혹은 발아기라고 할 수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학회지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전임 편집위원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 발전 단계(2004~2007년.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

전임 장철훈 교수가 2004년 7월부터 편집위원장을 맡아 학술지의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2004년 대한의학학술편집인협회에 가입하였고, Korean Medline (KoMed. <http://koreamed.org/SearchBasic.php>)의 심사를 받아 우리 학회지 논문을 등록함으로써 처음으로 국내 DB에서 학회지 논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우수한 논문의 투고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학회에서 수여하는 학술상 중 하나를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2005년에는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의 등재지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신청하였고, 그해 바로 심사를 통과하여 2005년에 실린 논문부터 학진 등재 후보 자격을 획득하였다. 또한, 학술지의 외형적인 발전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오자 없는 학술지, 형식이 완벽한 학술지를 목표로 stringent 간사와 당시의 모든 편집위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오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논문의 PDF 파일이 만들어지고 저자의 최종 교정이 끝난 상태에서 전 편집위원들이 모든 논문을 각 단락별로 나누어 맡아서 교정을 실시하였다. 어떤 때는 편집위원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논문의 오자를 교정하는데 몰두하기도 했다. 편집위원의 교정 단계에서 확인한 결과, 저자 교정까지 끝난 상태의 논문에서도 많은 오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도 영문 투고 규정 신설, 학회지 표지 도안의

변경, 참고문헌의 영문화, 원고 첫 페이지 영문화 등 학술지를 국제 수준에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3. 성장 단계(2007~현재.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학술진흥재단(지금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회지가 되기 위해서는, 2년 연속해서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2005년 처음으로 등재후보 자격을 획득하였으므로, 2006년에는 평가를 신청할 수 없고 2007년 재평가 대상이었다. 내가 편집위원장이 되면서 등재 잡지로 승격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은 셈이다. 편집위원장을 맡은 첫 해(2007년)에는 73.5점의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아서, 학진 등재 후보지를 유지하는 것조차 불안하였다. 평가는 전년도 학회지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로 나뉘는데, 특히 전문가 평가에서 가장 배점이 큰 논문의 질에서 C등급을 받았다. 지금 돌아보면 매우 편파적인 평가였다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우리 학회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자극제가 되었다. 2008년 1월 의학학술지편집인의 워크숍에 3일간 참여하여 학술지 편집에 관한 제반 지식을 함양하였고, 같은 해 7월 우리 학회와 수혈학회 공동 주최로 중앙대병원에서 1일간의 워크숍을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전담 원고편집인(manuscript editor)을 고용하였고, 외국인 편집인을 위촉하였다. 원고 심사는 첫 해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종이를 출력하지 않고 빠르게 투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었다. 심사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으며, 영어 교정을 위해 외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연구윤리규정을 신설하였고, 2009년부터는 연 4회 발행하고 있다. 현재 매년 약 50편의 원고가 접수되며, 그 중 40편 정도가 게재되고 있다. 편집위원의 심사 비중을 낮추고, 일반 회원의 심사 비중을 높였다. 신회봉 간사와 편집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 덕에 2008년과 2009년 연속해서 80점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받아서, 2009년부터는 학진 등재 학회지로 인정을 받고 있다.

4. 향후 발전 방향

어영 정보이사의 노력으로 2010년부터 홈페이지에서 원고의 투고 및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SCI나 학진 등재 잡지에

투고할 때 우리 학회지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인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 학회지 논문이 좀 더 쉽게 인용될 수 있도록 각종 DB에 연결할 수 있는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임상미생물을 전공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학회지보다 월등한 학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성장을 해 온 것이 자랑스럽다. 그러나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우리의 정신적 지주인 ‘학회지’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학회지의 영문화, 세계화, 그리고 PubMed나 SCI 등재 등의 목표를 세우고 한걸음씩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회원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여, 질 높은 원고를 많이 투고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학진의 학회지 평가 요소

1) 전문가 패널 평가 55점

- ①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20점
- ② 참고문헌의 서지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완전성 10점
- ③ 논문집의 체계와 구성 5점

- ④ 편집위원의 전문성 5점
- ⑤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5점
- ⑥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 5점
- ⑦ 연구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5점

2) 자체 평가 45점

- ① 논문명, 저자명, 초록 및 주제어 수록형태 4점
- ② 학술지의 정시발행 여부 10점
- ③ 연간 학술지 발행횟수 4점
- ④ 논문 게재율 5점
- ⑤ 게재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 확정일자 기재 여부 2점
- ⑥ 논문 투고자의 국내외 분포도 6점
- ⑦ Cyber 출판여부 5점
- ⑧ 논문 1편당 심사위원수 3점
- ⑨ 편집위원의 심사점유율 2점
- ⑩ 편집위원의 전국성 2점
- ⑪ 편집위원의 중복성 1점
- ⑫ 연구윤리규정 제정 여부 1점